굽이치는 하얀 밤: 정윤경 개인전 ≪Archetype of Night (밤의 원형)≫

글 | 정수진

작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블루&그린』에서 파란색과 초록색에 대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언어로 붓질한다. 햇빛에 반짝이는 야자나무의 칼날 같은 잎이 초록을 흘리면 사막 한복판을 떠도는 낙타와 하얀 꽃 사이를 뛰노는 개구리가 나타나는 초록의 세계.[[1]](#footnote-1) 이러한 초록이 사라지면, 파도 소리와 함께 새하얀 물줄기를 뿜어내는 주둥이와 콧구멍 그리고 파란 비늘을 가진 몸이 등장하는 파랑의 세계가 펼쳐진다.[[2]](#footnote-2) 이 언어의 붓 자국들을 곱씹어 보면 초록의 세계는 햇빛이 드리운 어느 방, 파랑의 세계는 어촌 마을의 한 척의 배를 닮아있다. 하지만 울프가 그린 초록과 파랑의 세계는 현실의 한 장면과 닮아있으면서도 무척이나 낯설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 즉 ‘추상의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윤경 작가의 개인전 《Archetype of Night (밤의 원형)》 역시 그러한 추상의 세계를 그린다. 이번 개인전에서 작가는 씨솔트(Sea Salt)라는 색에 집중하는데 기존의 색상을 작가의 방식대로 재구성했다. 마치 초록과 파랑을 덜어내고 썰물 때 드러나는 간석지를 한 움큼 집어삼킨 듯한 색이다. 정윤경의 ‘씨솔트’ 시리즈는 되짚어 생각해 보면 작가의 삶 속 여러 요소를 연상시키지만 분명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캔버스 위로 창조한다.

씨솔트 색이 드리운 백야 위로 무수히 많은 선과 막이 중첩되며 하나의 세계를 축조해 나간다. 밤의 한복판을 부유하는 맹그로브의 붉은 뿌리 위로 떨어진 주아[[3]](#footnote-3)가 오묘한 무늬와 미세한 잔털을 자랑하는 살굿빛의 네펜데스로 태어난다. 머리카락처럼 미세한 물줄기로 이어지는 검은 폭포가 흐르고, “단순히 외부에서 안으로 접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내부를 구성함으로써 외부의 감각을 만들어 내는” 끊임없이 흡수하고 소화 중인 내장의 것과 같은 선홍빛과 적갈색의 미끈한 돌기와 주름이 나타난다.[[4]](#footnote-4) 미생물의 단면과도 같은 여러 기하학적 문양의 집합. 색의 파도에 부딪혀 찍히고 흐르고 흩뿌려지며 고스란히 드러나는 캔버스의 살갗. 작가가 ‘핑거 스펠(Finger Spell)’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손가락의 체온을 간직한 네온사인 같은 자유분방한 빛줄기. 굵직하고 세밀한 선의 자국들 위로 얇은 종이가 만들어내는 세포막.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자의 고유한 영역과 안과 밖의 교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억들.[[5]](#footnote-5) … 마치 밤의 숨구멍을 뚫고 나온 듯한 각각의 개체들은 각자의 자리를 온전히 보존하며 서로의 위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렇게 다양한 색과 선, 그리고 막으로 구성되는 정윤경의 회화는 작가의 정신적 배설이자 의식의 내장이다. 동시에 이 굽이치는 하얀 밤은 작가가 잃어버린 밤에 대한 동경이자 상상이다.[[6]](#footnote-6)

한편 작가가 굵고 가는 선으로 구축해 나가는 낯선 세계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곧 정윤경 작가가 아닐까 유추해 본다. 특히 이 선들을 보고 있으면, 단어를 미끼로 사용하며 작가 자신의 손에서 느낄 수 있는 진동 그 자체를 언어로 옮긴 작가 클라리시 리스펙토르(Clarice Lispector)의 분절된 심지어 문법을 전혀 개의치 않는 단어들이 떠오른다.[[7]](#footnote-7) 이에 대한 설명은 리스펙토르가 아구아 비바(Água Viva)에서 인용한 짧은 문구로 대체한다.

음악처럼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어떠한 이야기도 없으며, 신화도 만들지 않는, 인물—혹은 대상—에 대한 의존에서 자유로운 그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회화는 꿈이 생각이 되고 선이 곧 실재가 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의 세계를 환기할 뿐입니다.

-미셀 쇠포르(Michel Seuphor)[[8]](#footnote-8)

1. 버지니아 울프, 민지현 옮김, 『블루&그린』, 서울: 더 퀘스트, 2023, 8-11쪽 참조. [↑](#footnote-ref-1)
2. 버지니아 울프, 앞의 책, 12-15쪽 참조. [↑](#footnote-ref-2)
3. 주아(珠芽)는 “크기가 작은 비늘줄기로 잎겨드랑이 모서리나 꽃이 피는 자리에 만들어지며, 완전한 크기로 자라면 떨어져 새로운 개체가 된다.” 네이버 국어사전, “주아” 참조. [↑](#footnote-ref-3)
4. Mark Wigley, “The Excremental Interior,” *e-flux Architecture*, (September 2022), <https://www.e-flux.com/architecture/digestion/487070/the-excremental-interior/>. [↑](#footnote-ref-4)
5. See, Gregor Mobius, “Personal Entropy,” *e-flux Journal,* (April 2022), <https://www.e-flux.com/journal/126/460209/personal-entropy/>. [↑](#footnote-ref-5)
6. 작가 노트 참조. [↑](#footnote-ref-6)
7. See, Clarice Lispector, translated by Stefan Tobler, Edited by Benjamin Moser, Água Viva (New York: New Directions, 2012) 5, 15. [↑](#footnote-ref-7)
8. Lispector, Água Viva. [↑](#footnote-ref-8)